

# 문단 주요 작가들 해남에 등지 '문학의 본향' 제2 전성시대



해남 '망갈순례문학관'과 '백련재 문학의 집'에 국내 유수의 작가들이 새 동지를 틀어 한국문학 전성기를 이끌고 있다. 사진은 망갈순례문학관 전망대 겸 북카페. <해남군 제공>

'망갈순례문학관'·'백련재 문학의 집' 황지우·송기원·문태준·손택수 등 원로·중견 작가들 발걸음 이어져

해남 '망갈순례문학관'과 '백련재 문학의 집'에 한국 문단의 원로·중견 작가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해남을 연동리 고산운선도 유적지에 문학작가들이 머물며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백련재 문학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총 8개 창작실에는 국내 우수 작가들이 입주해 있다.

황지우(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박병두(해남 가는 길), 정택진(봄), 이원화(꽃이 지는 시간), 송기원(아름다운 얼굴) 작가 등이다.

북일면이 고향인 황지우 시인은 백련재 문학의 집에서 집필 활동을 더하며 해남에 정착하고자 거주지를 건축 중이다.

황산면 출신인 박병두 시인도 고향에 집필실을 꾸리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 박 시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주제로 한 영화 시나리오의 막바지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남도 고유의 정서에 시대적 아픔을 풀어내는 소설가로 평가받는 정택진 소설가 역시 차기작을 준비하며 글쓰기에 집중하고 있다.

2020년 오월평화페스티벌에서 포스트 5·18 작품 부문에 선정된 이원화 소설가는 문학관 상주작가로 활동하며 다양한 강좌를 통해 지역민

들의 문학 역량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아름다운 얼굴', '월행' 등으로 잘 알려진 송기원 소설가는 이달 백련재에 새 동지를 틀었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원로작가인 그는 올해 말까지 해남에 머무르며 망갈순례문학관·백련재 문학의 집 소식지에 글을 쓰는 등 지면을 통해 독자와 만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채길순(우방애기), 이지담(고전적인 저녁) 작가 등 문인들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70~80년대 김남주, 김지하, 황석영, 고정희 등으로 풍성했던 해남 문학 전성기의 재현을 기대해볼 만하다.

백련재 문학의 집과 연계 운영하는 망갈순례문학관에서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진행되는 '시문학콘서트'를 통해 국내 유수의 중견작가와 함께 하는 자리를 갖는다. 문태준(그맘때에는), 손택수(호랑이 발자국), 조용미(나와 다른 이름들) 작가의 출연이 확정됐다.

망갈순례문학관에서는 '시 쓰기 강좌' 등 지역민들을 위한 문학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백련재 문학의 집과 망갈순례문학관은 국내 유수의 작가들이 찾아오면서 살아있는 문학의 현장이라 할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며 "고산 운선도에서 시작된 국문학의 본향 해남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완도 인구 2년3개월 만에 늘었다

'5만 지키기 운동' 등 효과  
지난달보다 18명 늘어

완도인구가 2년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완도군의 '5만 인구 지키기 운동'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완도군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완도 인구는 5만 210명으로 전달(5만 192명)보다 18명이 증가했다.

이는 2018년 4월 6명 증가 이후 2년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7월 말 인구통계를 보면 출생이 20명인데 반해 사망은 41명으로 자연적 요인으로 21명이 감소했다.

전출은 320명, 전입은 359명으로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것이 인구 증가 요인으로 파악된다.

완도군은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결혼·출산·양육 친화 환경, 직장 걱정없는 환경, 거주하기 편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완도 5만 인구 지키기'를 위해 각급 기관·단체와 학교, 사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완도사랑 주조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들에게 능력 개발



완도군은 전남도 인구정책 공모사업으로 '섬마을 새대기(氣)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노회화 새대기들이 매월 1회 운영하는 섬마을장터. <완도군 제공>

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위한 SNS 마케팅 교육 등 '청년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완도군은 또 전남도 인구정책 공모에서 '섬마을 새대기(氣)살리기' 프로젝트가 선정돼 1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누구나 계속 살고 싶은 희망찬 미래 완도 실현을 위해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며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해남형 뉴딜' 77개 사업 실현 가능성 높인다

문제점·예산 확보 등 전문가 자문 구해

재생에너지 전용 산업단지, 고구마연구센터, 세계유산체험, 디지털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해남군이 발굴한 '해남형 뉴딜' 77개 사업이다. 해남군이 이들 사업의 실현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듣는 등 발로 뛰고 있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한국판 뉴딜사업종합계획에 대응해 발굴한 해남형 뉴딜사업의 선제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자문활동에 나섰다.

해남군은 앞서 디지털 뉴딜 43건, 그린 뉴딜 24건, 안전망 강화 10건 등 총 77건의 해남형 뉴딜사업을 발굴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RE100(재생에너지 전력 100% 산단) 전용 시범산업단지 조성, 해남고구마연구센터 설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비대면 세계유산 체험 플랫폼 품 개발 등이다.

또 디지털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가상현실 종합전시훈련장 구축, 식품업체 빅데이터 수집 및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사업과 연계해 해남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했다.

해남군은 이들 사업의 시행을 위해 강상구 부군수를 주축으로 각 사업별 소관 부서장과 담당 팀장이 동행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어촌공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을 방문해 전문가들에게 관련 사업을 설명하고 문제점,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강상구 해남부군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응한 해남만의 뉴딜 정책을 발굴했다"며 "앞으로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왕새우 산지가공시설

## 신안 압해읍에 준공

가격 안정·일자리 창출 기대

신안군은 최근 압해읍 송공리에 왕새우 산지가공시설을 건립(사진), 준공식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왕새우 산지가공시설은 작업동과 냉동냉장시설 2개동 686㎡ 규모로, 보조금 6억원과 자부담 4억원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 '바른씨푸드'는 비공급 출신 청년이 귀어해 창업한 회사로,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등으로 왕새우를 판매해 연간 25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안군은 이 시설 준공으로 왕새우의 흥수 출하를 방지해 산지 가격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은 김·왕새우·개체급 학교 운영, 각종 귀어·귀촌인 육성 시책 등을 펴고 있다. 이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두번째로 귀어인구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신안은 왕새우 주산지로서 전국 생산량의 52%인 연간 4000t의 왕새우를 생산, 5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올해는 7월 중순부터 출하를 시작해 8월 현

재 1kg당(35~40마리) 2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출하 때마다 되풀이되는 왕새우 흥수 출하 등 유통문제 해결을 위해 산지가공시설을 건립했다"며 "산지 가격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와 왕새우 양식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0. 9. 23(수) ~ 28(월)  
· 전 형 일: 2020. 10. 12(월)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2021. 1. 18(월)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